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국제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감산 합의와 경제지표 호조 영향으로 하락
- * 국제가격, 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 기대로 유가가 8% 급등한 것과 민간고용에 이은 10월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 상승 등의 지표 영향으로 하락 출발
- * 국제가, 오후 들어 달러 강세를 우려한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된 가운데 WTI 가격이 9.3% 오르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이 더 나왔지만, 낙폭을 소폭 줄임
- * 10년물 수익률은 11월에 56bp 가량 올라 2009년 12월 이후 한달 기준 가장 큰 상승폭 기록
2년물, 30년물도 11월 한달동안 각각 26.4bp, 42.8bp 상승

[미국]

2y	1.12%	(+2.8bp)
5y	1.85%	(+7.2bp)
10y	2.39%	(+9.4bp)
30y	3.04%	(+9.5bp)

[기타 10Y물]

영국	1.41%	(+4.8bp)
독일	0.27%	(+5.4bp)
프랑스	0.75%	(+5.4bp)
이탈리아	1.98%	(+4.5bp)
스페인	1.55%	(+4.2bp)
그리스	6.45%	(-34.2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강해지며 유틸리티와 통신업종이 약세를 보여 혼조세 마감
- * OPEC 회원국 2008년 후 약 8년 만에 산유량 감축에 합의하고 러시아까지 감산 의사를 밝히면서 급등세 유가 9%대 급등
 - 하루 원유 생산량을 120만배럴 감축한 3천250만배럴로 제한하는 데 합의
 - 러시아 에너지장관 '내년 상반기 하루 산유량을 점진적으로 30만배럴까지 줄일 준비가 돼 있다'
- * 일부 기업들은 美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12개 연준의 관할 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세 지속 <베이지북>
 - 여러 지역이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고 설명
 - 고용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임금 성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집계

- * 美 경제지표는 대체로 호조를 보이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임
 - 10월 개인소비지출(PCE) 전월대비 0.3% 증가... 전망치는 0.5%였지만 9월 증가율이 0.5%에서 0.7%로 상향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
 -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2% / 전년대비 1.4% 상승
 - 10월 개인소득, 예상치(0.4%) 상회한 0.6% 증가 기록
 - 11월 민간부문 고용, 21만6천명 증가... 조사치 17만명을 웃돈 것이며 지난 6월 이후 최대치
 - 11월 시카고 PMI, 전월 50.6에서 57.6으로 상승...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며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줌

- * <유럽 마감> OPEC의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제히 상승... 유럽 증시의 에너지업종은 3.5% 이상 상승
 - 한편 이탈리아 은행 업종은 그간의 매도세가 과도했다고 평가되면서 3% 상승

- * <상하이 마감>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유동성 긴축 우려감에 하락 마감

- * <도쿄 마감> 석유수출국기구(OPEC) 정기 총회를 앞두고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에 강보합세 마감

DOW30	19123.58	(+0.01%)
NASDAQ	5323.68	(-1.05%)
S&P500	2198.81	(-0.27%)
NIKKEI225	18308.48	(+0.01%)
SHANGHAI	3250.03	(-1.00%)
FTSE100	6783.48	(+0.17%)
DAX30	10640.30	(+0.19%)
CAC40	4578.34	(+0.59%)

3.글로벌 환시

- * 달러화,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...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.45% 상승한 101.44 기록
 - 달러/엔 환율은 114엔을 돌파하며 8개월 반 만에 최고치까지 급등

위안화 가치 3거래일 연속 절상 고시... 그동안 고공 행진했던 미 달러화 가치가 내림세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

유로/달러	1.0596	(-0.0049)
유로/엔	121.24	(+0.56)
달러/엔	114.41	(+1.99)
달러/위안	6.8865	(-0.0024)
파운드/달러	1.2506	(+0.0013)
NDF	1176.00 / 1177.00원...7.35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OPEC 8년 만에 감산에 합의... 국제 유가 9% 가까이 급등

* <국제 금값>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를 이끈 데 따라 하락

WTI 49.44 (+9.3%)
 COMEX금 1173.90 (-1.4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1983.48 (+0.26%)
 코스닥 596.11 (+0.01%)
 원/달러 1169.10 (+0.60)
 KTB 109.32 (-0.01)
 LKTB 125.37 (-0.05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장중 하락과 상승을 오간 끝에 보합 마감. 초장기물은 정부의 발행물량 축소 이슈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임.

CD(91d) 1.5200% (0.00bp)

[국고채]

1y 1.6470% (-1.40bp)
 3y 1.7220% (+1.20bp)
 5y 1.9110% (+0.40bp)
 10y 2.1500% (+1.20bp)
 20y 2.1670% (+1.00bp)
 30y 2.1550% (-1.20bp)
 50y 2.1440% (-1.10bp)

[통안채]

1y 1.6450% (-1.60bp)
 2y 1.7200% (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12.25bp	(+1.35bp)
2Y	-18.00bp	(0.00bp)
3Y	-15.20bp	(-2.20bp)
5Y	-26.60bp	(+0.10bp)
10Y	-36.50bp	(+0.3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보험권내에서 혼조세. 채권 현물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IRS금리가 움직임.

* CRS, 부채스왑 물량 영향으로 전일에 이어 상승세 지속.

*IRS 금리

1Y	1.5250%	(+1.50bp)
2Y	1.5400%	(0.00bp)
3Y	1.5800%	(0.00bp)
5Y	1.6400%	(0.00bp)
7Y	1.7000%	(0.00bp)
10Y	1.7700%	(0.00bp)

1*2Y	1.50	(-1.50bp)
2*3Y	4.00	(0.00bp)
2*5Y	10.00	(0.00bp)
3*5Y	6.00	(0.00bp)
5*7Y	6.00	(0.00bp)
5*10Y	13.00	(0.00bp)

*CRS 금리

1Y	0.9900%	(+2.00bp)
2Y	1.0500%	(+6.00bp)
3Y	1.0750%	(+6.50bp)
5Y	1.1250%	(+8.50bp)
7Y	1.1350%	(+8.00bp)
10Y	1.1200%	(+5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- *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'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조절 정책 일부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지'
- * Fed 제롬 파월 이사 '다음번 금리 인상 시기와 같은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야 하며 다른 연준 인사들보다 연준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가 중요'
- * 美 10월 펜딩 주택판매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주택 시장 개선세가 강하지 않음을 시사
 - 10월 펜딩 주택판매지수, 0.1% 상승한 110.0... 조사치 0.8% 상승
- * 美 주택가격, 10년 전 고점 넘어서 <WSJ>
 - S&P코어로직 케이스-실러 전국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9월 美 주택평균가격은 2006년 7월의 고점을 0.1% 넘어서
 - 고점을 회복했다는 것은 대침체로 비롯된 최악의 시기를 마감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...앞으로 美 주택 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리라는 낙관론에도 힘을 실어주는 셈

[국내]

- * 한은, 12월 통안채 8.8조 발행...전월비 1.5조 축소
- * 기재부 "적자국채 줄여 국가채무비율 40% 이하 관리 가능"
- * 뒤늦은 CD금리 상승 조정...채권시장 "현실과 괴리"
- * 시중은행 내년부터 LCR 60% 준수 의무화..."자본유출 막는다"

금일 예정 지표

[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]
 [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]

한국-11월 CPI(YoY) (예상:1.5%, 이전:1.3%)
 -11월 수출(YoY) (예상:1.2%, 이전:-3.2%) / 11월 수입(YoY) (예상:2.9%, 이전:-4.8%)
 -11월 무역수지 (이전:6.97B)
 중국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1.0, 이전:51.2)
 -11월 비제조업 PMI (이전:54.0)
 -11월 Caixin 제조업 PMI (예상:50.8, 이전:51.2)
 미국-실업보험청구자수 (예상:253K, 이전:251K)

- 11월 제조업 PMI (예상:53.9, 이전:53.9)
 - 10월 건설지출(MoM) (예상:0.5%, 이전:-0.4%)
 - 11월 ISM 제조업고용 (예상:52.3, 이전:52.9)
 - 11월 ISM 제조업 PMI (예상:52.2, 이전:51.9)
 - 독일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4.4, 이전:54.4)
 - 영국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4.5, 이전:54.3)
 - 유로존-11월 제조업 PMI (예상:53.7, 이전:53.7)
 - 10월 실업률 (예상:10.0%, 이전:10.0%)
-